

교육감님께,

방금 모든 연수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47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를 그 식당으로 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에 선생님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잔씩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연수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저는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차례의 교사연수단을 총괄해오면서 항상 이렇게 종합평가를 제가 보고를 드려왔는데, 대부분은 저의 성격성,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은 잘 못하고, 직선적이고, 또 할말은 꼭 하는 성격이라서, 잘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하면 더 알찬 연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아무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적'을 많이 만들어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저는 이번 연수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여섯가지 입니다.

첫째,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연수단을 선발하셨는지 또는 누가 책임을 맡아서 연수단을 선발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한분 한분 (딱 한 여자선생님은 시차 적응이 힘이드셨는지 가끔 졸으신적이 있지만)이 창의력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업관람과 학교견학을 하실 때에 그 어떤 연수단 보다도 더 진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을 안하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부탁드린 대로 다 예의바르고 품위있고 친절한국인의 이미지를 미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진행해오면서 꼭 몇명은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행동들을 해서 저의 얼굴을 뜨겁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명도 그런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국학교 수업관람과 학교견학을 할 때마다 저는 살얼음을 밟는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미국 학생들과 교사들의 눈이 그 한국 연수단 선생님들을 보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의 일반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또한 그 학부모들까지도 한국인에 대한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지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불미스러운 일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가 그야말로 동방예의지국을 이끄는 스승님들다운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연수를 하다가 보면, 정말 꼴 보기 싫고, 손아래 선생님들에게서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는 인솔자들이 간혹있는데요. 이번의 연수단장님과 부단장님을 비롯한 인솔단의 인품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일정 안에 관광기간이 연수기간 보다 더 긴것 (이것이 처음부터 저의 불만이었지만요) 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람이나 해외쇼핑하러 나온듯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단체 행동 스케줄에 따라 잘 시간을 엄수해주셨고 개인적인 요구보다는 단체행동에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행사가 중간에 끼어서 제가 여행사 좋은일만 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속이 상했고, 또 미리 방문학교이름과 연락처를 제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학교에서부터 아주 먼곳에 사구려 호텔을 (아침식사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50달러이면 충분한 호텔) 정해 놓아서 미국학교스쿨버스를 이용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가까이에 60달러에서 70달러 수준의 호텔이 수십개나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많이 열심히 배워가시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훌륭한 연수단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먼 곳에서 이렇게 제 힘과 열정을 쏟아 부은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있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미교육청장님을 하시다가

순직하신 저의 은사님이신 조순현선생님의 은혜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을 한 듯 해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저는 조순현 선생님이 아니었다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어 주셨듯이 이번에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도 이번에 이곳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학생들의 인생의 경로를 좋은 길로 바꾸시는 분이 되시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저는 조순현선생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어야지요.

아무쪼록 이번에 연수단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보고 배운것을 금방 다 까먹어 버리지 않도록 여러 창의력연수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창의력의 잠재력이 있는 숨은 학생들을 발굴해 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교사들이 한국교육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야만 하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